

미국 소수인종 문화의 최근 부상에 대한 고찰

— 「도의적 공정성(Political Correctness)」과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 —

김 성 곤

1. 「백인 중심문화와 소수인종 주변문화」의 구도변화

9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미국의 문단과 학계는 점증하는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와 탈식민주의(postcolonialism)의 영향을 받아, 소수인종 문화와 문화에 대한 전례없는 관심과 열기에 휩싸이게 된다. 문단에서는 아프리카계 미국 여성작가인 토니 모리슨(Toni Morrison)이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게 되었고, 학계에서는 미국문화의 형성에 일익을 담당한 소수인종 문화에 대한 연구들이 활성화되었으며, 대학에서는 종래의 백인중심 서구문명 교육에 대한 강력한 비판이 일기 시작했다. 그 결과, 새로 생긴 『히스 앤솔로지(The Heath Anthology of American Literature)』¹⁾는 그동안 다른 앤솔로지 — 예컨대 『노튼 앤솔로지(The Norton Anthology of American Literature)』나 『문학 속의 미국전통(The American Tradition in Literature)』 같은 앤솔로지 — 에서는 제외되었던 미국의 소수인종 작가들의 작품을 수록하게 되었고, 미국의 각 대학들에서는 대규모 교과과정 개편 작업이 이루어져 소수인종 문화나 문학을 정규과목으로 설강해 가르치게 되었다.

이 논문에서 논하려고 하는 ‘도의적 정당성(political correctness)’²⁾은 바로 그런 맥락에서 태동된 새로운 진보주의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PC는 그동안 너무나 당연시 되어온 리이비스(F.R. Leavis)식의 서구의 ‘위대한 전통’ 관념에 근본적인 회의를 제기하고, 근대 이후 모든 것의 중심에 자리잡아온 서구문명에 의해 주변으로 밀려난 비서구 문화의 복권과 새로운

*이 논문은 1994년도 교육부 학술연구조성비(지역연구)에 의해 연구되었음.

- 1) 『히스 앤솔로지(The Heath Anthology of American Literature)』는 최근 미국내 보수주의 백인 학자들로 부터 ‘인종차별적 앤솔로지’라는 평을 받고 있다. 그들은 이 앤솔로지가 백인작가들에 대해 인종차별을 하고 있다고 비난한다.
- 2) ‘political correctness’는 우리말 번역이 거의 불가능한 용어이다. 예컨대 ‘political’이라는 말은 ‘정치적’이라는 뜻이라기 보다는, ‘법률적(legal)으로는 문제가 안되지만 도의적으로는 문제가 되는’의 의미에 가깝다. 그래서 PC에 동참하는 사람(행위)을 ‘도의적으로 공정한 사람(행위)(politically correct person(thing))’이라고 하며, PC의 강령을 따르지 않는 사람(행위)을 ‘도의적으로 공정하지 못한 사람(행위) politically incorrect person(thing)’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PC와 가장 근접한 의미를 갖고있다고 생각되는 ‘도의적 공정성’이라는 번역어를 선정했다. 그러나 이 경우의 ‘공정성’은 ‘진보주의자들의 정의에 따른 공정성’이지, 법률적이나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공정성은 아니다.

가능성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대단히 고무적이고 바람직한 운동으로 태동되었다. 그러므로 PC는 백인중심 지배문화에 대항해 주변부의 소수인종 문화를 옹호한다는 그 취지에 있어서만큼은, '도의적으로 올바른(politically correct)' 운동이었다.

그러나 PC는 바로 자신의 '도의적 올바름(political correctness)'과 '스스로 의롭다함(self-righteousness)'에 대한 확신으로 인해 곧 또하나의 경직된 이데올로기로 굳어버렸고, 그 결과, 처음에는 좋았던 모든 이념들이 다 그렇듯이 결국 독선과 억압과 횡포의 이데올로기로 변질되었다는 느낌을 준다. 예컨대 PC는 대학 강의실이나 강연장이나 토론장에서 발표자들로 하여금 입조심을 하게 만들었고, 건전하고 활발한 논의를 심각하게 위축시켰다. 사람들은 이제 자신이 흑시라도 소수인종 문화나 여성이나 동성연애자에 대해 무의식적인 실수를 할까봐 전전긍긍하게 되었다. 만일 누구든지 편견이 깃든 발언을 하게되면, 그 사람은 곧 '도의적으로 정당한' 사람들에 의해 '인종차별주의자'나 '남성 우월주의자'로 낙인찍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의 경력은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되고, 심한 경우에는 대학이나 직장에서 쫓겨나기까지도 한다. 그 결과, 최근들어 PC는 온건파 진보주의 학자들 사이에서도 비판을 야기시켰을 뿐만 아니라, 다문화주의나 소수인종 문화에 대한 백인 보수주의자들의 거부 반응을 오히려 강화시키는 역효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편 자신들의 입지에 위기를 느낀 백인 보수주의자들은 스스로 '서구문명과 서구전통의 수호자'로 자처하며, 서구의 정전들과 전통에 도전하는 PC에 대항하고 있다. 「전국 학자 연합(The National Association of Scholars)」이라는 보수단체를 결성한 이들은 PC를 '언론 자유 탄압,' '정치적 검열,' '새로운 매카시즘,' '야만주의,' '비이성주의,' 또는 '억압 담론'이라고 비난하며, 자신들을 '학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위해 싸우는 투사'로 묘사하고 있다. 학문의 자유를 위해 투쟁한 것으로 유명한 시드니 후크(Sidney Hook)를 기념해 이들이 제정한 「시드니 후크 기념 강연(The Sidney Hook Memorial Award)」의 1994년 수상자는 예일대의 석좌교수((역사 및 고전 문명)(Bass Professor of History and Classic Civilization))인 도널드 케이건(Donald Kagan)으로 결정됐는데, 그는 수상 수락 강연인 「왜 우리는 서구문명을 공부해야만 하는가?(Why We Should Study Western Civilization?)」에서 다음과 같은 놀라운 발언을 하고 있다.

내가 악명이 높아진 이유는, 내가 예일대학교 신입생들에게 서구문명 연구를 인문교육의 중심에 놓아야 된다고 연설했기 때문입니다 ... 나는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종간의 갈등과 불화의 파괴적인 결과를 지적하며, 미국의 문제점과 기회에 대해 말했습니다. 예컨대 나는 미국은 단 하나의 조상이 아니라, 서구 전통에서 파생된 여러 관습과 신념으로 부터 태어난 나라라고 말했지요. 그러므로 나는 미국의 화합이나 정치적, 개인적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서구의 전통과 역사와 관념들을 잘 알아야만 한다고 말했습니다.

... 사람들은 대학이나 인문교육이라는 개념 자체도 사실은 서구의 경험에서 생성된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 서양은 예전에는 꿈도 꾸지 못했던 건전하고 물질적인 풍요를 가능하게 해주는 자연과학적 지식과 테크놀로지의 성취, 그리고 전례없는 자유를 사람들에게 제공해주는 정부제도와 법제도를 만들어냈는데, 이와같은 것들은 서구 외의 지역이나 서구가 영향을 끼친 지역의 사람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들입니다. 나는 '우리들의 보편적 문명'이 주로 서구에 의해 형성되었다는 인도인 베이폴(V.S.

Naipaul)의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와같은 사실을 아는 지구인들은 누구나 서구의 과학과 테크놀로지로 부터 혜택을 받고싶어 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또한 정치적 자유를 갈망합니다. 그것은 곧 한 사회가 이성과 객관성을 지식의 본질로 받아들이고, 동시에 그것을 유지하고 진전하게 해주는 정치적 자유를 확보하지 않고서는 서구의 과학과 테크놀로지의 혜택을 완전히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구 경험의 특성인 이성과 객관성의 추구야말로 세계 어느 곳에서나 궁극적인 목표가 될 것입니다 ... 그러한 '현대성(modernity)'의 혜택을 받고 싶어하는 비서구인들과, 그러한 것을 보존하고 싶어하는 서구인들은 모두 서구 문명의 관념과 역사를 연구해야만 할 것입니다.

... 서구 이외의 지역에서는 공화국이라는 개념을 몰랐습니다. 비서구에서 지배자는 신성한 존재거나 신의 대변자로 생각되었고, 종교적·정치적 제도들과 신념들이 상호보충적으로 철저히 결합되었습니다. 정부는 세속적이고 이성적인 분석이 아니라, 종교적 권위와 전통과 권력에 근거해 있었고, 개인의 자유는 아예 아무런 중요성이 없었습니다. 그러한 것들과 결별한 최초의 국가는 고대 희랍입니다.³⁾

케이건의 강연을 비교적 길게 인용한 이유는, 그의 강연 내용에 에드워드·사이드(Edward W. Said)가 '오리엔탈리즘(Orientalism)'이라고 명명한 놀라운만한 서구인의 편견과 오만과 왜곡이 귀절귀절 마다 들어가있기 때문이다. 우선 케이건은 서구문명을 인문교육의 중심에 두어야 된다고 말함으로써, 비서구문명을 간단히 주변부로 몰아내고 있다. 그런다음, 그는 미국이 "서구 전통에서 파생된 여러 관습과 신념으로 부터 태어난 나라"라고 말함으로써, 백인 문화와 더불어 미국문화를 이루고 있는 원주민 문화와 아프리카계 미국인 문화, 그리고 히스패닉계 미국인 문화와 아시아계 미국인 문화를 부당하게 무시하고 있다.

동양에 대한 케이건의 무지와 방만은 그가, "사람들은 대학이나 인문교육이라는 개념자체도 사실은 서구의 경험에서 생성된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라고 말할 때 보다 명백해진다. 그러한 그의 오만함은 이어서 그가, "인문학 뿐 아니라 자연과학과 테크놀로지도 역시 서구의 산물"이라고 말할 때, 그 극에 달한다. 케이건은 물론 '근대 서구문명'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것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와 고전문명을 전공한 그가 서양에 끼친 고대 중국과 아라비아의 뛰어난 과학기술과 테크놀로지에 대해서는 일체 함구하고 있다는 점은 이해하기 힘들다. 서구문명에 대한 케이건의 찬양은, 과학과 테크놀로지는 이성과 합리주의를 요구하고, 이성과 합리주의는 정치적 자유를 요구하기 때문에, 결국 서구의 과학기술은 민주주의에 기초하고 있다는 그렇듯한 궤변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만일 그의 말이 옳다면, 테크놀로지가 고도로 발달했던 나치도 역시 민주주의적이었고 합리주의적이었던다는 얘기가 된다.

또 그가 '현대성(modernity)'과 '보편적 문명(universal civilization)'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 비서구인들은 서구문명을 배워야만 한다고 말할 때, 그는 자신의 무지를 드러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세기 초에나 통할 법한 시대착오적인 망언을 하고 있는 셈이 된다. 이 포스트모던 시대에 아직도 모더니즘의 제국주의적 망령과 착각에 빠져있는 이 노인은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비서구 국가들에서는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지 않은 군주제였고, 오직 서구만이 공화국의 개념을 갖고있었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종교와 정치가 거의 분리되지 않았던 중세까지의 서구 역사는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케이건은 역시 고전시대에 향수를 갖고 있었던 모더니스트처럼, 고대 희랍에서 민주주의 공

3) Donald Kagan, "Why We Should Study Western Civilization," Academic Questions, 8: 2(Spring 1995), 51-52.

회국의 완벽한 원형을 찾는다. 그는 이미 고대회랍 시대에 서구는 민주주의 국가를 수립했다고 말한다. 여기에서 그는 민주주의적이었다는 회랍 문화가 사실은 노예제도에 근거해 있었다는 가장 기본적인 역사적 사실까지도 의도적으로 무시하거나 망각하고 있다. 케이건의 회랍예찬론에 대해서는 에드워드 사이드(Edward W. Said)의 다음 지적이 적절한 답변이 된다.

... 회랍문명은 분명 이집트와 셈족, 그리고 그의 동쪽이나 남쪽의 문화에 뿌리를 두고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19세기에 유럽인들이 그것을 '아리안' 문화로 재편성하여 원래의 셈족과 아프리카의 뿌리는 정화되거나 아예 시야에서 사라져버리게 되었다. 회랍의 작가들은 자신들의 문화적 혼성성을 공공연하게 인정했기 때문에, 유럽의 문헌학자들은 회랍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그와같은 귀절들을 못본척하고 아무런 언급없이 지나쳐버리는 이데올로기적 습관을 갖게 되었다. (우리는 또한 19세기에 이르러서 십자군을 연구하는 유럽의 사학자들이, 비록 당대의 십자군 원정 기록들에 서구 기독교병사들이 인육을 먹었던 것이 당당하게 기록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프랑크 기사들의 식인 행위에 대해 언급을 중지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상기해야만 한다).⁴⁾

사이드교수의 지적을 들으면서, 우리는 예일대의 석좌교수, 그것도 역사학자의 역사관이 그릇된 편견과 근거없는 오만에 가득 차 있다는 점에 새삼 놀라게 된다. 문제는 그와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미국대학에는 상당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억압적이고 폭력적인 PC운동에서도 문제는 발견된다. PC운동은 대학입학이나 취업에 '유색인 할당량(minority quota)'을 채우도록 하고있는 'Affirmative Action'의 도움을 받고 있다. 그러나 『고독한 군중(The Lonely Crowd)』의 저자인 데이빗 리스만(David Riesman)이 지적하고 있는대로, 'Affirmative Action'은 간혹 백인 남성에게 대한 차별이 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유색인 내부에서의 차별(예컨대 흑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히스패닉계나 아시아계의 경우)도 될 수 있다. 더구나 같은 흑인의 경우에도 여성이 훨씬 더 유리함으로 인해서 흑인남성이 차별을 받을 수도 있다.⁵⁾

이와같은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이 논문에서는 미국내에서 최근 부상하고 있는 다문화주의와 소수인종 문화의 가능성과 문제점을 PC운동을 중심으로 고찰하려고 한다. 그와같은 것에 대한 문화적 고찰은, 최근 미국문화의 흐름과 특성에 대한 보다 정확한 학문적 이해와 지식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지역연구'로서의 가치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것은 국내 대학의 교육방향과 교과과정에도 타산지석의 교훈을 줄 수 있을 것이다.

2. 「도의적 공정성」과 「다문화주의」의 의의와 가능성

「도의적 공정성(political correctness)」은 90년대에 들어서면서 부터, 미국의 각 대학에 급속도로 퍼져나가고 있는,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에 근거한 새로운 진보주의 운동이다. 미국 대학생들의 의식을 본질적으로 개조하고 있는 이 체제전복적인 지적 움직임의 목적은, 창립 이래로 미국 대학들을 지배해온 근본적인 편견을 제거하고, 인류 문명사의 중심부에 위치해온 서구(유럽)의 지적 전통의 유효성에 회의를 던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PC에 동조

4) Edward W. Said, *Culture and Imperialism*(New York: Alfred Knopf, 1992), pp. 15.

5) Wilfred M. McClay, "The State of American Higher Education: A Conversation with David Riesman, Part Two" in *Academic Questions*, op. cit. p. 41.

하는 사람들은, 그동안 대학에서 가르쳐온 ‘위대한 책들(Great Books)’⁶⁾이나 ‘걸작(masterpiece)’이나 ‘정전 canon’들이 모두 서구 백인들의 문화유산이었음을 지적하며, 이제는 아리스토텔레스나 단테나 셰익스피어와 더불어 소수인종 문학 텍스트도 가르치고 배워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PC운동에 있어서 소수인종 교수 채용과 학생 모집, 그리고 교과과정 개편은 가장 기본적인 작업이 된다.

PC운동은 물론 거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PC는 모든 소수인종들 — 예컨대 유색인들, 여성들, 동성연애자들 등 — 에 대한 조롱이나 무시나 모욕을 금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존재를 인정하며, 더 나아가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연구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그 결과 미국의 각 대학에서는 소수문화에 속한 사람들을 모욕한 학생들과 교수들이 곤욕을 치르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며, ‘인종(race)’과 ‘성(gender)’과 ‘다양성(diversity)’에 대한 교과목들이 속속 설강되고 있다.⁷⁾ 그러한 의식을 갖고, 그러한 움직임에 동참하는 사람을 ‘도의적으로 공정한 사람(politically correct person)’이라고 부른다.

1991년 1월 14일자 『뉴스위크(Newsweek)』지는 ‘사고(思考)에 대한 감찰(Thought Police)’라는 제목으로 PC 특집을 꾸미면서, 미국 대학 캠퍼스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가지 PC 관련 사건들을 소개해주고 있다. 예컨대 코네티컷대학교 2학년인 중국계 학생 니나 우(Nina Wu)는 자신의 기숙사 방문에, ‘눈에 보이는 대로 사살하겠음 — 돈 많은 예비학교 출신, 바람둥이, 가슴에 털 안난 남자, 그리고 호모’라고 써 붙였다가, 호모 대학생들의 항의를 받아 기숙사에서 쫓겨났다. 또 캘리포니아 버클리대에서는 인류학과의 빈센트 사릭(Vincent Sarich) 교수가 동창회지에 대학의 소수인종 채용 쿼터제도가 백인들과 아시아인들에게 불리하다는 글을 썼다가, 학생들의 데모로 인해 수업을 못하게 된 경우도 있었다. 그런데 그는 “뇌의 크기는 지성의 뛰어남과 비례하는데, 흑인들의 뇌는 백인들 보다 작다”는 이론을 펴서 이미 말썽이 난 사람이었다. 또 샌프란시스코 주립대에서는 로버트 스미스(Robert Smith) 교수의 ‘흑인 정치학’ 강좌가 흑인학과(the Black Studies Department)가 아닌 정치학에 설강된 데에 대해 학생들이 집단 항의 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PC 운동은 비단 문학강좌나 학문분야에서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예컨대 PC는 나이에 대한 차별(ageism)과 동성연애자들에 대한 차별(heterosexism), 그리고 외모에 대한 차별(lookism)과 신체의 능력에 대한 차별(ableism) 모두에 대해 반대를 표명하고 있다. 그러한 맥락에서, PC는 소수에 대한 다수의 편견을 불식시키기 위해 과거의 관습적인 용어들을 대치하는 새로운 용어들을 만들어 냈는데, 그 대표적인 것들을 예로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불구자(disabled) 다른 능력을 가진 자(differently abled)

-
- 6) 예컨대 시카고대학에서 발간해온 ‘The Great Books’ 시리즈는 바로 서구문화 정전화의 한 대표적인 예가 된다. 그 시리즈에 왜 동양의 고전들을 포함시키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그들은 “우리는 동양의 고전에 대해서는 그 질을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대답했다. 이 역시 동양의 고전은 감히 거기에 걸 수 없다라는 내용의 수사학적/우회적 답변이라고 볼 수 있다.
- 7) 대부분의 미국대학들은 PC 관련 과목을 필수로 지정하고 있어, 적어도 두과목 정도는 이수해야 졸업이 가능하게 된다. 예컨대 펜실베이니아주립대의 PC 관련 과목 중 하나는 Identity in Literature: Race, Gender and Diversity인데, 이런 과목들은 타문화와 타인종에 대한 대학생들의 이해를 넓히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여자아이(girl)	예비 여성(rewoman)
나이 많은 학생(old student)	비전통적 나이의 학생(non-traditional age student)
유색인(colored people)	색깔있는 사람(people of color)
여성(women)	여성(womyn, 'men'을 빼기 위해 달리 표기함)

위에 열거한 신조어들을 보면, PC가 그동안 사회로부터 배제되고 제외되어온 계층에 대해 새로운 조명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곧 PC가 마르크시즘 Marxism의 맥락에 근거하고 있을 의미한다. 예컨대 특권층과 기득권층으로부터 권력을 빼앗아 억눌리고 소외되어온 계층에게 나누어주려고 한다는 점에서 PC는 기본적으로 마르크시즘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노동자들과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사회혁명을 근거로 하는 정통 마르크시즘과는 다소 다른, 다분히 학문적이고 이론적인 형태의 수정된 마르크시즘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마르크시즘의 붕괴이후, 인민을 위한 경제적, 정치적 혁명으로 부터 대중문화를 옹호하는 문화연구로 변모한 좌파운동의 최근 궤적과도 맥을 같이 하고 있다.

PC는 또 마르크시즘으로부터 비정치적이라고 비난받는 해체이론과도 긴밀한 연관을 갖고 있다. 왜냐하면 탈중심과 탈구축과 탈위계질서를 주창하는 해체이론처럼, PC 역시 탈서구 중심과 탈정전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체이론에 의하면, 이 세상에 중심이 되는 '마스터 텍스트'란 없다. 그러므로 모든 텍스트와 모든 문화는 기본적으로 평등하고 동등하다. PC 역시 서구의 정전들과 걸작들과 '위대한 책'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동안 제외되고 소외되어온 비정전에 새로운 조명을 가한다.

그리고 PC의 그와같은 태도는 결국 그것이 절대적이고 신성한 지배문화가 아닌, 상대적이고 세속적인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PC의 다문화주의는 모든 문화의 동등성을 인정함으로써, '위대한' 서구문화의 지배를 거부하며 백인 남성 문화의 독선을 부정한다. PC는 그것만이 흑인들로 하여금, 노예소유주였던 토머스 제퍼슨을 위대한 인물로 존경하는 역사적 아이러니를 중지시킬 수 있다고 말한다.⁸⁾

PC의 이와같은 태도는 당연히 보수진영의 반발을 가져왔다. PC에 반대하는 교수들은 뉴저지주 프린스턴에 본부를 둔, 「전국 학자 연합(The National Association of Scholars)」을 결성해, 서구문명과 인문학의 위기가 도래했다고 주장하며, 현재 각 대학에서 불고있는 PC 선풍에 대항하고 있다. 이들의 강령은 "학문생활의 근원이 되는 이성적인 담론에 헌신하기 위해서"이다. 여기에는 몇가지 아이러니가 발견된다. 우선, 이들은 스스로를 '이성적 담론'과 동일시함으로써, PC를 '비이성적 담론'으로 규정짓는 오류 — 즉 푸코가 『광기의 역사』에서 지적하고 있는 오류 — 를 범하고 있다. 재미있는 점은, 이들이 요즘의 진보적인 문학이론을 싫어하면서도 '담론(discourse)'이라는 최신 비평용어를 차용해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 흥미있는 점은, 이들이 자신들을 다수의 야만인들 사이에 둘러싸인 소수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단지 아프리카 스와힐리어로 글을 쓰지 않았다고 해서 PC가 셰익스피어를 평

8) 미국의 3대 대통령이자 독립선언서를 기초한 토머스 제퍼슨은 노예 소유주였을 뿐만 아니라, 흑인 여자노예와의 사이에 클로텔(Clotel)이라는 딸이 있었다고 전해진다. 흑인작가 William Wells Brown은 그것을 *Clotel, or the President's Daughter*(1853)라는 소설로 썼다. 이 최초의 흑인소설에서, 클로텔은 어머니와 같이 남부로 팔려가는데, 남부로 팔려간 클로텔은 아버지가 대통령으로 있는 워싱턴 D.C.로 도망치다가 노예주인 버지니아주와 워싱턴을 연결하는 포토맥강 다리 중간 지점에서 추적대에게 붙잡히자 강으로 뛰어내려 자살한다.

가절하 시키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 중에서도 반더빌트(Vanderbilt)대의 정치학교수인 진 엘슈타인(Jean Elshtain)은 “만일 어떤 작품의 질에 대해 평가하거나 판단하려고만 해도, 대번 지적 평등에 어긋난다는 비난이 일어난다.”라고 말하며, 다음과 같이 불만을 표명했다. “내가 체슬로 미요즈(Czeslaw Milosz)의 작품을 ‘고전’이라고 했더니, 동료 여교수가 자기는 ‘고전’이라는 말에 숨막히는 ‘억압’을 느낀다고 불평했다.”

또 듀크(Duke)대의 정치학 교수이자 NAS 지부장인 제임스 바버(James Barber)는 대학 구내서점에 가서 ‘마르크스’라는 제목이 붙은 모든 책을 진열대에서 치우라고 지시해 물의를 일으켰다. 바버 교수의 그러한 행동은 즉시 그 대학의 영문과 석좌교수이자 독자반응 비평이론의 창시자인 스탠리 피쉬(Stanley Fish) 교수로 부터 비판을 받았다. 피쉬는 NAS의 회원들을 인종차별주의자라고, 성차별주의자이며, 호모공포증 환자들이라고 비난했다. 피쉬는 이미 수년전에, 영문과의 교과과정에 설치된 소수인종 문학이나 여성문학으로 인해 인문학이 위기를 맞고 있다고 주장한 하버드대학의 월터 잭슨 베이츠(Walter Jackson Bates)에 반대해, 그와 더불어 유명한 「프로페셔널리즘/엔티프로페셔널리즘」 논쟁을 벌였던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다.⁹⁾

한편, 위스콘신(Wisconsin)대(메디슨 캠퍼스)의 유럽사 교수인 시오도르 해머로우(Theodore Hamerow)는 “우리를 파시스트, 인종차별주의자, 성차별주의자라고 불러도 좋다”라고 말하며, 소수인종이라는 이유만으로 쉽게 교수로 채용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한다. 해머로우는, “예전에는 소수인종이나 여성이면 교수직을 얻을 수가 없었는데, 요즘에는 정 반대로 소수인종이나 여성이어야지만 쉽게 교수로 채용된다”고 말하며, 그 두 가지는 똑같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그는 또 “사람들은 자기네 나라의 문화와 역사를 먼저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미국 학생들은 다른 나라의 문화를 알기 전에 미국의 문화와 역사를 먼저 알아야만 한다.”라고 말한다.¹⁰⁾

NAS에 동조하거나 소속된 백인교수들은, 또 서구문명이 대학의 교과과정의 핵심이 된 이유는 백인교수가 많아서도 아니고, 우연히도 아니며, 그만큼 가치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말한다. 예컨대 그들은 서구문명은 소중한 개인적 자유를 주창했으며, 역사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주장한다. 즉 동양문명이나 아프리카 문명이나 남아메리카문명은 전혀 그런 업적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들은 미국문화를 다양화하거나 다문화주의화 하는 것은 통일된 국가인 미국을 극도의 혼란 속에 빠뜨릴 것이라고 걱정한다. 그들은 또 PC 그룹이 자기들을 인종 차별주의자나 성 차별주의자라고 부르는 것은 매카시즘 시대에 죄없는 사람을 공산주의자라고 부른 것과 똑같다고 항의한다.

어쩌면 이들의 반발에도 일리가 있는지 모른다. 과연 『뉴스위크』지 특집의 부제도 「PC: 캠퍼스의 새로운 계몽인가, 새로운 매카시즘인가?」이다. 그렇다면 PC는 소수 그룹의 문화를 대변하는 새로운 계몽운동인가, 아니면 NAS가 주장하는대로 마녀재판을 통해 보수주의자들을

9) 월터 잭슨 베이츠와 스탠리 피쉬의 ‘프로페셔널리즘/엔티프로페셔널리즘’ 논쟁에 대해서는 줄저 『포스트모던 시대의 작가들』(민음사, 1991)에 나오는 ‘스탠리 피쉬와의 대담’ 편을 볼 것(123-127면).

10) 이 글에 나오는 여러 사례들은 『뉴스위크』지 1991년 1월 14일자, PC 특집 42-48면에서 참조한 것임.

정죄하는 또 하나의 매카시즘인가? 우선 “만일 어떤 작품의 질에 대해 평가하거나 판단하려고 한 해도, 대번 지적 평등에 어긋난다는 비난이 들어온다.”라고 말하는 반더빌트대의 진 엘슈타인 교수의 견해에 대해서 부터 고찰해보기로 한다. 그녀의 말을 문자 그대로만 해석하면, PC의 평등주의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게 된다. 왜냐하면 그녀에 의하면, PC는 모든 비평과 비판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PC가 의도하는 것은 단순한 질적 비판의 회피가 아니라, 비서구 문화 텍스트들에 대한 서구인들의 무조건적인 경시에 대한 경계일 것이다.¹¹⁾ 사실, 엘슈타인의 위 비난의 근거에는 비서구 텍스트들에 대한 비하와 비판의 길이 차단된데에 대한 서구인들의 불만이 깔려있다고 보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서구인들은 서구의 정전들만이 인류문명을 대표하는 고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으며, 비서구 텍스트들의 가치를 인정하는데에는 크게 인색했었기 때문이다.

듀크대의 NAS 지부장인 제임스 바버 교수의 태도에 대해서는 스탠리 피쉬의 다음 견해를 들어볼 필요가 있다.

대학이 학문에 대한 다양한 접근에 문을 열어놓자, 많은 학자들이 불쾌해 했고, 또 문화를 대변하는 보편적인 것이 사라져가 데에 대해 대단히 불안해 했습니다 ... 그러한 사람들이 쓴 책의 플롯은 언제나 똑 같습니다. 즉 최근까지 지식체계는 완전했고 총체적이었다. 문화 역시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통일성과 목적을 상실했다. 우리는 사회가 더 이상 구원불가능한 정도로 타락하기 전에 예전의 그 공통의 규범을 회복해야만 한다, 등등. 그러나 나는 그러한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건 너무나 낮은 관념입니다.

구시대의 일관성은 해체되었지만, 새시대의 일관성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1950년대의 ‘끓는 가마솥 (melting pot)’ 이론은 우리가 어떤 인종적, 문화적, 민족적 배경을 갖고있는지 간에, 우리는 모두 미국의 특성과 미국의 인생관이라는 통합적 틀을 이루는데 공헌한다는 생각에 근거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러한 생각은 ‘차이의 이데올로기’에 의해 교체되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자신들의 인종적, 문화적, 성적 차이를 긍정하고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누가 그렇게 하자고 결정한 것도 아니고, 투표로 정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다만 어느날 깨어보니 더 이상 지금은 1950년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된 것입니다.

오늘날 교수들은 매 18개월마다 한번씩 새롭게 재충전을 해야만 합니다. 이제 겨우 하나의 문학이론을 매스터했다고 생각하는 찰나, 또 새로운 것이 나타나니까요. 예컨대 구조주의가 채 흡수되기도 전에 탈구조주의가 왔었고, 사람들이 채 깨닫기도 전에 탈구조주의는 포스트모더니즘과 급진적 페미니즘과 신역사주의에 의해 교체되었습니다. 신역사주의는 다시 인류학적 신역사주의와 문화적/유물론적 신역사주의의 대립구조로 나뉘어졌고, 이제는 생태학적 비평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누가압니까, 앞으로는 동물권리 비평도 등장할는지 말입니다.¹²⁾

11) 최근 ‘다문화주의’의 주창자로서 유명한 흑인작가 이슈마엘 리드(Ishmael Reed)가 서울에 와서 강연을 했는데, 강연이 끝나고 있었던 리셉션에서 서울의 어느 대학교 영문과에 객원교수로 와있던 한 백인교수가 내게 다가와 다문화주의에 대해 비판의사를 표명하면서, “과연 소수인종 문학에도 읽을 가치가 있는 수준의 작품이 있거나 하느냐”고 물었다. 그것은 물론 다문화주의의 여파로 인해 요즘 미국 대학에서 교수직을 얻기가 힘들어진 백인들의 우선적인 반응이기도 하겠지만, 사실은 모든 보수적 백인들의 공통적인 견해가 아닌가 생각되었다.

12) Newsweek, 앞 책, 44-45면.

피쉬는 그러한 변화를, 오래 전에 표를 사서 승차했었는데, 지금보니 자기가 다른 기차에 타고있다는 것을 발견한 사람들의 깨달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에 의하면 정전이 완전히 없어지거나 세상이 뒤집어지는것은 아니다. PC는 다만 관습적인 통념에 새로운 조명을 시도할 뿐이다. 그렇다면 PC는 단지 견해의 차이일 뿐이다. 그래서 피쉬는 “의견 차이는 재미있는 법입니다”라고 말한다.

NAS의 교수들이 주장하는 것, 즉 “서구문명이 대학의 교과과정의 핵심이 된 이유는 백인 교수가 많아서도 또 우연히도 아니고, 그만한 가치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라는 생각, 그리고 “서구문명은 소중한 개인적 자유를 주창했으며, 역사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관념, 또 “동양문명이나 아프리카 문명은 전혀 그런 업적을 이루지 못했다”는 사고방식 역시 방만하고 위험한 생각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동양문명이 서구가 아직도 미개했을 때 이미 찬란하게 발전했으며, 서구문명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는 역사적 사실조차도 모른다는 스스로의 무지함을 스스로 드러내는셈이 된다. 그리고 그들이 자랑하는 “개인의 자유” 역시 지고의 가치가 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동양문명의 특징인 “커뮤니티 스피릿” 역시 “개인의 자유” 만큼이나 소중하고 중요한 가치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사람들은 자기네 나라의 문화와 역사를 먼저 알아야한다. 그러므로 미국 학생들은 다른 나라의 문화를 알기 전에 미국의 문화와 역사를 먼저 알아야만 한다.”라고 말한 위스컨신대의 시오도르 해머로우 교수의 견해에 대해서도 에드워드 사이드(Edward W. Said)의 다음 지적은 좋은 대답이 된다.

그러한 의미에서 문화란 여러가지 정치적, 이념적 명분들이 서로 뒤섞이는 일종의 극장이라고도 할 수 있다. 아폴로적인 점잖음의 온화한 영역과는 거리가 먼채, 문화는 대의명분들이 백주에 드러내놓고 싸우는 전장이 될 수도 있다. 예컨대 타국의 고전 보다는 자국의 고전을 먼저 읽도록 가르침을 받은 미국과 프랑스와 인도의 학생들이 거의 무비판적으로 자기 나라와 자기 전통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충성스럽게 속해있는 반면, 타국의 문화나 전통은 격하시키거나 대항해 싸우는 싸움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아직도 개인이 국가에 의해 정의되는, 그래서 단절되지 않은 전통에 의해 권위를 부여받는, 그러한 관념을 물려받은 후손들이다. 미국에서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그러한 관심은 무슨 책들과 무슨 권위들이 ‘우리의’ 전통을 구성하는가에 대한 경쟁을 산출하고 있다. 어느 책이 ‘우리의’ 전통의 일부 분이라고(또는 아니라고) 말하려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우리를 가장 쇠약하게 만드는 행동이다. 그외에도, 그러한 태도는 역사적 정확성에 대해 공헌할 때 보다는 해악을 끼칠 때가 더 많다. 기록해두건대, 나는 ‘우리’는 ‘우리 것’에만 관심을 갖겠다라는 태도를 참을 수가 없고, 동시에 아랍인들은 아랍 책만을 읽고 아랍의 방법만을 써야된다는 태도에도 참을 수가 없다. C.L.R. 제임스가 늘 말했듯이, 베토벤은 그가 독일인인 만큼이나 서인도제도인일 수도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의 음악은 인류의 유산이기 때문이다.¹³⁾

사이드에 의하면, PC와 PC가 산출하는 다문화주의는 전혀 경계하거나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볼 성격이 아니라, 오히려 긍정적으로 포용해야만 된다. 왜냐하면 PC는 사실 분열이 아니라, 통합을 지향하는 담론행위이기 때문이다. 사이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13) Edward W. Said, *Culture and Imperialism*(New York: Alfred Knopf, 1992), pp. 15-16.

미국이 우리의 주의를 요구하는 그렇게 많은 역사를 갖고있다는 사실에 대해 갑자기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그것들의 대부분은 이미 오래전 부터 있어왔으며, 바로 그것들로 부터 '하나의' 미국사회와 정치가(심지어는 역사 기술의 한 스타일까지) 생성되었기 때문이다. 말을 바꾸면,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에 대한 현재의 논의의 결과는 미국의 '레바논화' 같은 것은 아닐 것이고, 만일 그러한 논의가 정치적 변화와 여성들과 소수인종들과 최근의 이민들이 스스로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는 변화를 의미한다면, 그러한 변화는 결코 두려워하거나 방어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기억해야만 되는 것은, 이 가장 강력한 형태의 해방과 계몽의 내러티브가 분리가 아니라 '통합'의 내러티브 — 즉 주요 그룹으로부터 제외되어 온 사람들이 그 속에서 자신들의 위치를 찾으려는 통합의 내러티브 — 라는 사실이다. 만일 주요 그룹의 낡고 관습적인 관념이 이 새로운 그룹을 허용할만큼 유연하고 관대하지 못하다면, 그런 관념들은 변해야만 된다. 그러한 변화는 새로 등장하는 그룹들을 단순히 거부하는 것 보다 훨씬 더 나은 행동이 되기 때문이다.¹⁴⁾

3. 「도의적 공정성」과 다문화주의의 문제점

PC는 물론 '도의적으로 공정하고 올바른(politically correct)' 논리에 근거해 있는 운동으로서, 그 취지가 바람직하다는데 대해서는 아무런 이의가 있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미국 각 대학에서는 PC에 대한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으며, 심지어는 진보적인 학자들조차도 PC의 횡포와 경직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예컨대 계간 문학지 『외국문학』 1995년 가을호와의 대담에서 전술한 에드워드 사이드 교수는 "나는 PC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스스로 도그마로 경직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PC가 다문화주의의 주창자인 사이드교수로 부터도 외면을 당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사이드 처럼 다문화주의의 옹호자인 레슬리 피들러(Leslie A. Fiedler)는 독선과 경직으로 빠지기 쉬운 PC의 위험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경고하고 있다.

저는 일생동안 PC(도의적 올바름)를 주장하는 우파 이데올로기와 싸워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역시 똑같이 도의적 올바름을 주장하는 좌파 이데올로기와 싸우고 있습니다. 저는 그들이 주장하는 '도의적 공정성'의 정의가 무엇이든지 간에, '도의적으로 공정하지 못함(political incorrectness)'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바로 그것이 제가 일생동안 해왔고, 또 앞으로도 해야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향해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 — 는 바로 그러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 하는 귀절은 바로 멜빌이 말했듯이, "그렇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모두 거짓말장이다.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자아>라는 가방만을 들고 <영원>을 향해 변경을 건너는 사람들이다."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렇다!'라고 말하는 것은 곧 그 순간 자기자신을 어느 한 이데올로기에 종속시키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정전을 연 다음, 계속 열어놓아라. 그러나 하나의 정전을 또 다른 정전으로 대체하지는 말아라"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만일 여성작가의 텍스트나 소수인종의 문학작품을 교수 스스로 좋아서가 아니라, 상황에 의해서 강제로 가르치도록 요구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누가 쓴 책이든지 간에, 그 책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다면 바로 그 책을 가르쳐야될 것입니다. 요즘은 예전에는 제외되었던 많은 텍스트들이 재조명 받고 다시 등장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과정에서, 사실은 질적으로

수준미달인 작품들도 새로운 정전으로 탈바꿈해 슬그머니 밀수되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흑인문학의 중요성과 도래를 외치는 사람들이 대중들에게 인기있는 흑인작가 프랭크 이얼비나 아이스버그 슬램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유명하고 역량있는 흑인 공상과학소설가 사무엘 들라니같은 사람의 작품도 <도의적 공정성>을 주장하는 사람들로 인해 아직 정전의 영역에 진입하지 못했습니다. 제 요점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정전 뒤집기>도 사실은 또 하나의 위장된 귀족주의가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¹⁵⁾

피들러 교수는 또 95년 8월 미국 뉴욕주 버펄로에서 있었던 『외국문학』과의 대답에서, “PC는 태동되면서 부터 이미 도그마로 경직되었습니다. 무엇이든지 스스로를 ‘올바르다고 correct’ 생각하는 순간, 그것은 이미 독선에 빠져들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PC가 이렇게 주요 진보주의 학자들로 부터도 외면을 당하고 있는 구체적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¹⁶⁾

그와같은 문제들을 가장 명징하게, 사례별로 제시해주고 있는 자료는 PC에 반대하는 보수주의 학자들의 모임인 NAS가 뉴 저지주의 럿거스대(Rutgers University)에서 발행하고 있는 *Academic Questions*라는 계간 저널이다. 물론 이 저널의 성격을 고려해볼 때, 독자들은 PC에 대한 *Academic Questions*의 비판의 강도나 내용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될 것이다. 사물을 제대로 보려면 언제나 양면적인 시각으로 보아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저널은 PC의 횡포와 독선을 설득력있게 고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은 진지하게 읽어볼 필요가 있다.

예컨대 개리 크로스비 브레이서(Gary Crosby Brasor)는 「앰허스트의 바이마르 공화국 (“Weimar in Amherst”)」이라는 글에서, 최근 앰허스트 소재 매사츄세츠대학¹⁷⁾에서 PC가 일으킨 일련의 사건들을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과 비교하면서 추적, 고발하고 있다.¹⁸⁾ 이 글에 의하면, 매사츄세츠 대학의 STPEC(the Social Thought and Political Economy Program) 회원들은 지난 92년 이래 계속해서 대학본부 점거, 대학신문사 기물 파괴, 그리고 폭력적인 데모를 계속해오고 있다. 그들은 총장에게는 일년 내에 10명의 소수인종 교수 채용을, 그리고 대학신문 Daily Collegian 주간에게는 소수인종 편집기자 채용을 강요했으며, 대학 기숙사에서는 Residential Education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신입생들을 의식화시켰다. 이 모든 것의 도화선은 92년 4월 29일에 있었던 로드니 킹(Rodney King) 구타 경찰관들에 대한 무죄 평결이었다. 로스 앤젤리스에서는 흑인 폭동이 시작되었고, 매사츄세츠 대학에서도 항의 데모가 벌어졌다. 브레이서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14) 위 책, xxvi 면.

15) 「레슬리 피들러와의 대답」, 『외국문학』 36호, 1993 가을호, 143-144면.

16) 필자가 1995년 여름에 연구차 미국에 가서 만난 진보주의적 학자들의 거의 대부분이 PC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갖고 있었다. 예컨대 Leslie A. Fiedler를 위시해 Marcus Klein, Neil Schmitz, Mark Shechner, Raymond Federman 등은 모두 진보적 성향의 비평가, 학자, 작가로 잘 알려져있는 사람들이데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PC에 대해 비판적이었다. 흥미있는 것은, PC에 반대하고 있는 학자들 중 상당수가 비 앵글로 색슨 미국인(예컨대 유태계 미국인)이었다는 점이다.

17) 현재 미국에서 PC논의가 가장 활발한 대학으로는, Duke, Stanford, Berkeley, Chicago, Massachusetts, Wisconsin, Harvard, Yale, Connecticut, Texas 등을 꼽을 수 있다.

18) Gary Crosby Brasor, “Weimar in Amherst,” *Academic Questions*, 8: 2(Spring 1995), 70-87.

예컨대 STPEC 교수회원이자, 흑인학 조교수인 존 브레이서는 “신사 숙녀 여러분, 로스 앤젤리스의 해방은 시작되었습니다.”라고 선언했다. 당시 L.A.에서 벌어지고 있던 약탈과 방화를 “미국 정치에 대한 참여”라고 언급하며, 그는 대부분의 관찰자들이 폭동이라고 본 것을 정치적 양심 행위로 묘사했다.¹⁹⁾

물론 브레이서는 여기에서 로드니 킹 사건에 대한 흑인 구타 경찰관들의 무죄평결의 부당성에 대해서는 완전히 침묵하고 있다. 그러므로 독자들은 그의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A폭동을 “해방운동”이나 “정치적 양심 행위”라고 해석하는 것의 부당성에 대한 그의 지적에는 타당성이 있어보인다. 브레이서는 이러한 부당한 선의의 폭력을 정당화시켜주는 것이 바로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라고 지적하며, 사람들은 다문화주의에 반대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극도의 말조심을 하게 되고, 그 결과 언론의 자유가 실종되었다고 말한다. 그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이제는 학생들은 물론, 그리고 교수들과 교직원들도 다소간은 자신들의 발언을 증거나 논리가 아닌, 쉽게 격앙되는 과격한 사람들의 감성에 비추어 가늠해보아야만 하게 되었다.²⁰⁾

리처드 번스타인(Richard Bernstein) 역시, *Dictatorship of Virtue: Multiculturalism and the Battle for America's Future*라는 1994년의 저서에서 “1960년대의 민권운동에서 비롯된 척하고있는 현재의 다문화주의는 사실 억압을 위한 마스크일 뿐이며, 사고의 진정한 다양성을 제거하고 실제 소수인종들과 관련된 그 어느 문제에 대한 논의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신랄하게 지적하고 있다.

다소 거칠게 표현한다면, 다문화주의의 수사학은 우리 모두로 하여금 단문화적이고 인종차별주의자라는 딱지가 붙을까봐 두려워 반응하지 못하고 도망치거나, 아니면 유럽 중심적인 가부장제와 그것의 지배전략이 부과한 헤게모니 구조에 순응하도록 만들었다. 다문화주의는 바로 그런 식으로 토론을 차단했고,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느낌과 생각을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들었다.²¹⁾

자신의 저서에서 번스타인은 90년대의 다문화주의가 마치 자유와 평등과 박애의 이념으로부터 벗어나 독재가 되어버린 프랑스 혁명처럼(당시 *derapage*라고 불렀던) 독선으로 변질되었다고 탄식한다. 그에 의하면, 다문화주의는 이제 새로운 관료주의에 힘입은 정치적 억압으로 전락했다. 하버드에서 역사와 동아시아 문화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중국과 동남아시아에서 저널리스트로서 일하고 있는 번스타인은 “이념적 다문화주의자들이야말로 자신들이 말로만 부르짖는 타문화에 대한 진정한 이해도 지식도 없는 사람들이며, 다문화의 복잡성을 무시하고 다양성을 도그마로 축소시키는 사람들”이라고 비판한다.

한편, 번스타인의 책에 대한 서평을 쓴 얼래스카대학의 주디스 클라인펠드(Judith Kleinfeld)도 다문화주의가 오늘날 어떻게 위협적인 요소로 변질되었는가를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19) Gary Crosby Brator, *op. cit.* p. 71.

20) *Ibid.* p.69.

21) Richard Bernstein, *Dictatorship of Virtue: Multiculturalism and the Battle for America's Future*(New York: Alfred A. Knopf, 1994), p. 8.

이 멋진 다문화주의가 어떻게 내가 날마다 대학에서 직면하는 억압으로 변해버렸는가. 하고 나는 스스로에게 물어보았다. 다문화주의는 교수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었다. 내가 어느 교수에게 문제성 있는 논제들을 학생들에게 주고 토론하도록하는 강의방법을 권하자, 그는 그러한 방법은 이제 너무나 위험해졌다고 내게 말하는 것이었다.²²⁾

클라인펠드는 오늘날 다문화주의의 궁극적 목적은, 도의적으로 보호받는 그룹(politically protected group)에 감히 대항하려는 목소리들을 침묵시키는 것으로 전략해버렸다고 지적한다. 클라인펠드는, 단순히 유럽사 강좌를 폐쇄시키거나, 타문화에 대한 무감각을 비난하거나, 또는 교수들로 하여금 유색인 학생들에게 나쁜 학점을 주지 못하게 강요하는 것 같은 것들은 진정한 다문화주의가 아니라고 말한다. 전술한 데이빗 리스만(David Riesman) 역시 미국 대학교육과 제도를 우려하면서 PC와 다문화주의의 최근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1994년에 네델란드 국영 텔레비전사가 제작한 3시간짜리 삼부작 프로그램인 「미국의 발명(The Invention of America)」의 제2부인 「미국의 꿈에 대하여(About the Dream)」에서도 미국 교육현장에서의 PC를 비판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그러므로 최근 미국 대학에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PC와 다문화주의가 현재와 같은 비난에서 벗어나 다수의 호응을 얻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경직성과 폭력성과 편협성으로 부터 벗어나야만 할 것처럼 보인다. 만일 그것이 “도의적으로 보호받고 있는” 특권계급이 되어 모든 반대의견을 차단한다면, PC나 다문화주의 역시 그동안 자신들을 억압해온 백인중심 이데올로기의 잘못을 그대로 반복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인 중심문화와 백인 중심 이데올로기의 편견과 독선에 대한 반언술로서의 PC나 다문화주의는 여전히 유효하고 또 필요할 것이다. 전술한대로, The Sidney Hook Memorial Award를 받은 Donald Kagan은 자신의 수상 기념강연인 “Why We Should Study Western Civilization”에서, “서구문명은 그것이 세계 근대사 형성에 끼친 지대한 공헌으로 인해 계속해서 대학에서 주요과목으로 가르쳐져야만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얼핏 그의 말은 타당성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같은 논리야 말로 바로 제국주의적 사고에 기초해 있다는 것, 그리고 NAS에 속해있는 많은 학자들이 사실은 보수주의적 앵글로 색슨 미국인들로서, 소수인종에게 헤게모니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문화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충분히 감안해야만 할 것이다.

4. 해롤드 블룸과 다문화주의

최근 예일대의 스티어링 석좌교수이자 뉴욕대의 버그 석좌교수인 해롤드 블룸(Harold Bloom)은 『뉴스위크(Newsweek)』지의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문학연구는 문화비평(Cultural Criticism)이라는 놀랄만한 쓰레기에 의해 장악되었다.”라고 개탄하고 있다. 자신의 최신 저서인 『서구의 정전(The Western Canon)』이라는 책을 통해, 마치 예전에 리이비스(F.R. Leavis)가 『위대한 전통(The Great Tradition)』에서 그랬듯이, 서구의 위대한 문학적 전통을 찬양하고 있는 블룸은 「우리는 전쟁에 졌다」라는 제목의 대답을 『뉴스위크』지

22) Judith Kleinfeld, “Review of Dictatorship of Virtue” in *Academic Questions*. op. cit. p. 90.

94년 11월 7일자에 게재했다. 다음은 기자의 질문에 대한 블룸의 답변이다.

질문: 문학의 목적은 무엇인가?

블룸: 나는 예술과 문학을 사회변혁의 수단으로 삼는 소위, '분노의 학파(The school of resentment)'가 오늘날 서구의 대학들에서 주도권을 잡고 있는 것에 대해 대단히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다. 문학의 효용성은 타자에게가 아니라, 바로 자기자신에게 이야기하는 법을 가르쳐준다는 데 있다. 문학비평가의 기능은 스스로에게 말하도록 저주받은 것의 슬픔과 위험한 영광을 가르쳐주는 것이다. 셰익스피어나 단테나 톨스토이나 단테는 모두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가르쳐준다. 하지만 문학에서 사회적 효용성을 찾는 것은 그 어느 때 보다는 더 허구적으로 보인다.

질문: 「분노의 학파」는 무엇에 대해 분노하는가?

블룸: 그들은 문학(literature)에 대해서, 난해(difficulty)한 것에 대해서 분노한다. 그리고 때로는 자신들이 배우면서 성장해온 훈육(discipline)에 대해 분개한다. 만일 그들이 자신들의 기능이 미국의 도시와 부패해가는 농장지대의 황무지에서 함정에 빠진 사람들의 끔찍한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들은 문학을 가르쳐서는 안된다. 그들은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활동가가 되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일생을 바쳐야만 한다. 하지만 그들은 그런 데에는 관심이 없다. 나는 예일대 교수 중 몇 안되는 노동자 계급 출신이다. 나는 이 문제에 관한 한 멀리에서도 위선자의 냄새를 맡을 수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블룸이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문학과 문학의 난해함을 옹호하는 모더니스트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아마도 의도적으로, '훈육(discipline)'을 옹호함으로써 그가 반(反)푸코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다. 그러나 문학을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도구로 사용하려는 사람들은 차라리 그 방법의 활동가나 투사나 되라는 지적과, 그러한 사람들의 위선에 대한 블룸의 지적은 나름대로의 타당성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되어진다.

질문: 위선자들이란 누구를 지칭하는가?

블룸: 사이비 마르크스주의자, 사이비 페미니스트, 푸코(Foucault)와 다른 프랑스 이론가들의 추종자들이다. 그들은 명백하게 미국의 대학들에서 선동작업을 하고있으며, 자신들과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만 채용하고 승진시킨다. 이제 미국에서 문학연구의 미래란 없다. 뉴욕대에서 나는 히피 같은 교수들에게 둘러싸여 있고, 예일대에서는 프루스트나 셰익스피어나 톨스토이 보다는 소위 대중문화에 대한 여러 글들에 더 많은 관심이 있는 교수들에게 둘러싸여 있다. 나는 내가 구시대를 옹호하는 싸움을 벌이고 있으며, 전쟁은 끝났고 우리는 졌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질문: 당신의 비판자들은 당신이 '죽은 유럽의 남성들'의 작품에만 집중하고 있다던데?

블룸: 마르크스주의자이자 카발리스트인 발터 벤야민은 모든 문명의 기념비란 곧 야만의 기념비라고 슬프게 말했다. 만일 벤야민이 지금 살아 돌아와 미국을 둘러본다면, 그는 모든 야만의 기념비들이 꼭 문명의 기념비만은 아니라고 경고할 것이다. 조만간 우리의 젊은이들은 자기들에게 부과되어 있는 이러한 정치적인 수단에 반발할 것이다. 그들은 저질의 작품을 읽는데 곧 싫증이 날 것이고, 그것들을 읽는 것이 사회적으로 옳다는 논리에도 싫증이 날 것이다.

여기에서 야만을 무시하고 문명을 중시하는 블룸의 모습에서 우리는 또 어렵지 않게 '위대

한 서구문명의 옹호자'를 발견한다. 그가 지칭하는 '야만'이 '다문화주의'를, 그리고 '문명'이 '위대한 서구문명'을 지칭한다는 것을 고려하면, 블룸은 다분히 제국주의적 이상을 갖고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서구의 작품은 위대한 문명의 '정전'이며, 비서구의 텍스트들은 야만스러운 '저질'이라는 그의 단순한 편견은 위험한 제국주의적 발상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유태계 미국인이자 봉제공장 노동자를 부모로 둔 그가 일단 미국사회에서 성공하자 갑자기 서구문명의 열렬한 옹호자가 되었다는 사실은 대단히 아이러니컬하다. 그의 이와같은 태도는 마치 자신을 대영제국의 일원으로 착각하고 식민지를 무시했던 또 다른 유대인 칼 포퍼를 연상시켜 준다.

질문: 만일 당신이 '서구의 정전'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더 이상 연구되지 않는다면, 무엇이 그것들을 대치할 것인가?

블룸: '서구의 정전' 대신 대중문화와 그 끔찍한 표어인, '도의적으로 공정한 작품들(politically correct works)'의 잡종이 들어맞게 될 것이다. 시카고 대학교수인 내 친구는 문학입문 강좌에 헤밍웨이 대신 멕시코계 미국작가 개리 소토를 가르치기 위해 자신이 대학당국과 싸운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내게 말했다. 전성기의 헤밍웨이는 체홉이나 조이스 만큼 훌륭했다. 하지만 개리 소토는 뭘 쓸줄 안다는 말인가? 내가 그 점을 지적하자, 그녀는 자기나 나는 무엇을 읽어도 괜찮지만, 학생들은 개리 소토를 읽어야 더 좋은 미국시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는 그녀의 태도가 일종의 사회적 파시즘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녀는 심미적 고려가 우리에게는 괜찮지만 학생들에게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나는 그러한 태도를 참을 수가 없다.²³⁾

여기에서 블룸은 '전성기의 헤밍웨이는 체홉이나 조이스 만큼 훌륭했다. 하지만 개리 소토(Gary Soto)는 뭘 쓸줄 안다는 말인가?'라고 말하고 있다. 두가지 것이 우리를 놀라게 한다. 하나는, 유럽작가들에 대한 그의 과도한 숭배와 미국작가에 대한 그의 상대적 비하이다. 또 하나는, 소수인종 작가들에 대한 그의 무조건적인 무시이다. 다문화주의는 잡종이고, 소수인종 문화는 보편성을 결여한 저질이라는 그의 단순화의 오류는 사실 오늘날 미국의 보수적 지식인들의 성향을 잘 드러내어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재미있는 것은, PC와 NAS, 그리고 다문화주의자들과 서구 정전주의자들이, 서로를 파시스트라고 부르고 있다는 점이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양대 진영이 각자 도그마로 전락하거나 마녀재판의 재판관으로 경직되지 않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만 할 것이다.

23) *Newsweek*(November 7, 1994), p. 62.